

# 幼學출신자의 문과급제 실태

김영란(학예연구소)

## 1. 서언

유학은 사족으로서 벼슬하지 못한 儒生을 지칭한다. 이들은 입신양명할 수 있는 舉業者로서 과거응시 및 擬望에 올라 初入仕에 서용되거나 免役 등 국가 시책과 관련하여 여타 직역과는 달리 특별한 처우를 받아온 대표적인 양반직역이었다. 양반사족의 자손이 출생할 경우 유학의 사회적 권위와 처우가 아무리 저하되었다하더라도 유학 외에는 사용할 직역이 따로 없었으며 유학이란 직역을 거쳐 立身하게 되었으므로 유학은 지배층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주요 직역이었다<sup>1)</sup>.

조선후기 유학중에는 가문과 재력을 배경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입사할 수 있었던 계층과 과거를 통하여 입사의 길을 모색하는 계층이 있었던 반면에, 그저 유학이라는 직역을 쓰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양반하층과 유학을 冒稱하는 중인·양인이 존재하였다.<sup>2)</sup>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학층 중에 본고에서는 문과에 급제한 유학을 대상으로 성관, 거주지, 급제시 나이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사회계층의 하나인 유학층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2. 유학출신 합격자의 분포

문과방목에 나타나는 문과합격자의 前歷은 幼學, 생원·진사, 元有階者, 기타로 나누어진다. 이를 각 전력에 따라 시기별로 합격자를 정리해 보면 <표 1>전력별 합격자 현황과 같다.

표1. 전력별 합격자 현황

구분	합계	15전	15후	16전	16후	17전	17후	18전	18후	19전	19후
유학	5,439 (35.9)	66 (7.15)	40 (3.38)	174 (14.45)	255 (20.01)	214 (13.88)	317 (20.89)	651 (38.54)	1,041 (50.90)	1,053 (66.81)	1,628 (73.96)
원유 계자	4,449 (29.37)	254 (27.54)	577 (48.85)	201 (16.69)	406 (31.86)	669 (43.41)	733 (48.31)	637 (37.71)	539 (26.35)	194 (12.30)	239 (10.85)

1) 이준구, 「19세기의 幼學層 확대와 身分制 변동」 『국사관논총』 제68집, 국사편찬위원회, 184쪽

2) 최승희, 「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 『국사관논총』 제1집, 국사편찬위원회, 1989, 93쪽

생원	2,774 (18.31)	569 (61.71)	342 (28.95)	398 (33.05)	270 (21.19)	317 (20.57)	234 (15.42)	184 (10.89)	233 (11.39)	130 (8.24)	97 (4.40)
진사	2,470 (16.3)	30 (3.25)	222 (18.79)	431 (35.79)	342 (26.84)	337 (21.86)	231 (15.22)	212 (12.55)	231 (11.29)	183 (11.61)	251 (11.40)
기타	18 (0.12)	3 (0.32)	-	-	1	4	2	5	1	-	2
합계	15,150 (100)	922 (100)	1,181 (100)	1,204 (100)	1,274 (100)	1,541 (100)	1,517 (100)	1,689 (100)	2,045 (100)	1,576 (100)	2,201 (100)

\*()는 %

〈표 1〉을 통해 문과합격자 중에 시기별 전력자의 합격률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유학은 문과 전체합격자 중 3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전력군이 되고 있다. 시기별로는 15세기 전반기에는 7.15%로 이 시기 가장 많은 합격자를 차지하는 생원<sup>3)</sup>(61.7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17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50%대에 이르면서 19세기 후반까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전력군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유학 출신 합격자가 73.96%를 차지하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유학출신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현저하게 합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전력은 생원이다. 생원은 15세기 전반기에 61.7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세기 전반에는 10%로 이하로 비중이 떨어지면서 유학이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는 19세기 후반에는 4.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적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들어 유학출신 합격자 수가 증가하는 데는 당시 유학층이 확대어가는 사회현상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서얼 후손이 유학을 칭하게 된다. 17세기 말 業儒·業武가 서얼의 문·무를 지칭하게 된 이후 서얼의 후손은 18세기가 되면서 왕명에 의하여 ‘유학’ 호칭이 합법화 되었다. 즉 숙종 34년 왕의 傳敎에는 “자신이 서얼인자만 업유·업무라 칭하고 업유·업무의 아들이나 손자는 유학으로 기록하여도 무방하다’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친서얼이 아닌 서얼 후손의 유학 호칭은 왕명에 의해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전반부터 서얼 후손의 합법적인 유학 호칭이 유학층의 수적확대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시기에는 ‘충의위 ‘에서’ 유학 ‘으로의 직역

3) 15세기 전반에 생원 출신자가 많은 것은 太祖가 고려 말에 詞章의 폐단이 아주 심했던 것을 감안하여 즉위 원년(1392)에 진사시를 폐지하고 생원시만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 후 진사시는 세종 20년(1438) 복설되었지만 세종 26년 2월 다시 혁파되고, 계속되는 치폐의 논의를 거쳐 단종 원년(1453) 2월에 가서 복구되었다. (최진옥, 『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 1998, 31-33쪽)

이동도 유학층의 수적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鄕吏들도 과거 응시에서 유학이라는 직역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층민의 冒稱幼學 역시 19세기에 오면서 유학층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결국 이러한 유학층의 확대가 유학출신 문과 급제자 증가의 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아울러 조선후기에 이르러 관학의 쇠퇴와 원점 질서의 붕괴로 인해 문과응시 자격조건인 생원·진사일 것과 원점 300점을 요구하지 않은 것 또한 유학층의 합격률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학은 수령이 발급해준 증명서를 통해서 사학, 향교에 소속되었다는 것만 확인받으면 식년시의 한성시와 향시에 응시가 가능하였다. 또한 중종 11년(1516)에 유학에게도 원점 200점을 얻어야 응시할 수 있게 한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20년 뒤인 중종 33년(1538) 폐지됨으로써 유학의 문과응시는 한층 자유로워졌던 것이다.<sup>5)</sup>

다음으로 유학 출신자가 어떤 종류의 시험에 많이 합격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 시험별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자.

표2. 시험별 합격자 현황

전 력 시험명	유학(%)	생원(%)	진사(%)	원유계자(%)
식년시	2,635 (48.44)	1,342 (48.37)	785 (31.78)	1,262 (28.36)
증광시	669 (12.30)	490 (17.66)	479 (19.39)	1,069 (24.02)
각종 별시	2,135 (39.25)	942 (33.95)	1,206 (48.82)	2,118 (47.60)
전 체	5,439 (100)	2,774 (100)	2,470 (100)	4,449 (100)

<표 2>에 의하면 유학은 다른 전력층에 비하여 48.44%로 식년시에 가장 많이 합격하고 있으며, 각종 별시를 포함하는 비정기시에 39.25%가 합격하고, 증광시에 나머지 12.30%가 합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원 역시 유학처럼 48.37%로 식년시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진사와 원유계자는 이와 달리 식년시 보다는 비정기시인 각종 별시에 각각 17.04%, 19.24% 더 많이 합격하고 있다.

4) 이준구, 앞의 글, 176-184쪽

5)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23-29쪽

유학이 진사·원유계자와는 달리 식년시 합격률이 높은 것은 유학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벼슬을 하지 않은 양반 사족이라는 데서 기인하다는 점이 크다고 본다. 즉 이들은 벼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재경사족이기 보다는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재지사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지사족에게는 비정기 시험보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 대비하기 용이한 식년시에 응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했을 것이고, 그 만큼 식년시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3. 유학출신자의 성관분석

문과에 급제한 유학출신의 성관을 조사해보면 성관을 알 수 있는 합격자는 총 5,305명이며 이들의 성관은 556개로 나누어진다. 성관수별로 배출된 인원수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3> 유학출신자의 성관수별 합격자 분포와 같다.

표3. 유학출신자의 성관수별 합격자 분포

	성관수(개)	비율(%)	합격자수(명)	비율(%)
300명이상	1	0.18	301	5.67
100-199명	5	0.90	595	11.26
90-99명	-	-	-	-
80-89명	6	1.08	517	9.75
70-79명	3	0.54	219	4.13
60-69명	4	0.72	255	4.81
50-59명	7	1.26	381	7.18
40-49명	7	1.26	298	5.62
30-39명	15	2.70	508	9.56
20-29명	24	4.32	602	11.35
10-19명	40	7.19	535	10.08
9-5명	68	12.23	473	8.91
4명	33	5.94	132	2.49
3명	32	5.76	96	1.81
2명	82	14.74	164	3.1
1명	229	41.19	229	4.31
합 계	556	100	5,305 <sup>6)</sup>	100

〈표 3〉 유학출신자의 성관수별 분포를 보면 합격자가 300명 이상인 성관은 단 1개의 성관이며, 합격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90-99명 사이를 제외하고는 80-89명, 70-79명, 60-69명, 50-59명, 40-49명 사이는 10개 이내의 성관이 존재하고, 30-39명은 15개, 20-29명은 24개, 10-19명은 40개, 9-5명은 68개, 4명은 33개, 3명은 32개, 2명은 82개, 1명은 229개의 성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조선시대 내내 단 1명의 문과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이 41.19%로 유학출신자들의 성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명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을 포함하여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을 살펴보면 총 444개로 전체 성관수의 절반이 넘는 79.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50명 이상을 배출한 성관은 26개로 4.68%에 불과하지만 합격자 배출 인원은 2,268명 4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유학출신자의 문과 합격자 배출 성관의 폭은 넓은 반면에 주요 성관에 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성관별로 배출인원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4. 각 성관별 배출인원

	성관 및 배출인원
300명 이상	전주이 301
100-199명	청주한 131, 파평윤 119, 남양홍 117, 안동권 117, 밀양박 111
80-89명	경주김 89, 반남박 88, 광산김 87, 연안이 85, 연안김 84, 진주강 85
70-79명	김해김 74, 경주이 73, 광주이 72
60-69명	여흥민 67, 동래정 65, 풍양조 63, 한산이 60
50-59명	신안동김 58, 청송심 58, 평산신 56, 안동김 55, 순흥안 53, 대구서 51, 풍천임 50
40-49명	수원백 48, 배천조 46, 여주이 43, 진주유 41, 영일정 40, 진성이 40, 해주오 40
30-39명	여산송 39, 전의이 39, 해평윤 39, 의령남 38, 제주고 36, 은진송 34, 의성김 34, 인동장 34, 용인이 33, 창녕조 32, 덕수이 30, 전주유 30, 창녕성 30, 풍산홍 30, 하동정 30
20-29명	문화유 29, 순천김 29, 전주최 29, 청풍김 29, 고령신 28, 진양정 28, 강릉김 27, 나주임 27, 남원윤 27, 양천허 27, 한양조 27, 기계유 25, 성주이 25, 창원황 25, 함평이 25, 상산김 24, 수안이 23, 나주정 22, 남원양 22, 남평문 22, 연일차 21, 초계정 21, 능성구 20, 해주정 20

6) 문과급제자중 유학출신자는 총 5,439이지만 이중 성관을 알 수 없는 134명은 제외하였다.

10-19명	<p>평강채 18, 함양박 18, 고령박 17, 선산김 17, 해주노 17, 해주최 17, 순천박 16, 양산신 16, 원주변 16, 전주김 16, 단양이 15, 양주조 15, 풍산김 15, 거창신 14, 벽진이 14, 신청강 14, 예안김 14, 장수황 14, 함안조 14, 함양여 14, 경주최 13, 밀양손 13, 양성이 13, 온양정 13, 전주주 13, 부령김 12, 영양남 12, 삭녕최 11, 성산이 11, 진천송 11, 풍산유 11, 현풍곽 11, 강릉최 11, 강릉최 10, 나주나 10, 우봉이 10, 원주원 10, 원주이 10, 이천서 10, 임천조 10, 진양하 10</p>
9-5명	<p>경주손 9, 공주김 9, 광주조 9, 단양우 9, 무안박 9, 영천이 9, 평해황 9, 강화최 8, 고성이 8, 고흥유 8, 광주정 8, 보성오 8, 서흥김 8, 수원최 8, 안정나 8, 아로송 8, 여양진 8, 영월엄 8, 온양방 8, 장흥위 8, 진주김 8, 청주정 8, 평택임 8, 풍천노 8, 함종어 8, 해남윤 8, 행주기 8, 강릉유 7, 개성김 7, 경주정 7, 공주이 7, 광주안 7, 도강김 7, 성주도 7, 언양김 7, 울산김 7, 정선전 7, 죽산박 7, 죽산안 7, 청주이 7, 흥덕장 7, 광산탁 6, 김해허 6, 부평이 6, 사천목 6, 수원김 6, 신창맹 6, 양주김 6, 연일승 6, 연주현 6, 우계이 6, 청주곽 6, 청주김 6, 충주최 6, 칠원윤 6, 평창이 6, 하양허 6, 홍주송 6, 나주김 5, 나주정 5, 동북오 5, 울산박 5, 울진임 5, 재령이 5, 제주양 5, 충주김 5, 충주지 5, 홍주이 5</p>
4명	<p>강진박, 결성장, 곡부공, 나주오, 나주전, 담양전, 면천복, 목천마, 밀양김, 부계홍, 부안임, 선산백, 성산여, 성주현, 순창조, 안성이, 안의임, 영광김, 예안이, 예천권, 용궁전, 인천채, 장흥임, 창원유, 청도김, 초계변, 충주박, 탐진최, 태안이, 태원선우, 평산이, 함열남궁, 해풍김</p>
3명	<p>고부이, 곡성임, 광주김, 광주정, 교하이, 남양방, 달성배, 당악김, 봉화김, 삼척김, 상주박, 상주주, 서촉명, 성산배, 수청최, 신죽산안, 아주신, 안동손, 연안승, 영성정, 영해신, 원주김, 전주임, 창원정, 천안전, 청해이, 충주석, 충주유, 통천김, 하빈이, 해평김, 흥해배</p>
2명	<p>가흥조, 간성이, 강을함, 개성왕, 거창이, 경산이, 경주박, 곤양배, 광산이, 광주강, 군위박, 금산김, 금성나, 김녕김, 나주이, 나주최, 남양김, 남양방, 남원전, 남포김, 남포백, 능성주, 단양장, 대구김, 대흥백, 덕산이, 덕수장, 만경노, 무성윤, 밀양문, 밀양조, 배천유, 배천최, 보성선, 부여서, 비안박, 상원최, 서산유, 선산길, 설성김, 수안계, 신평송, 신평이, 안동장, 안산김, 양주윤, 양천최, 영덕정, 영천김, 연천윤, 영해이, 옥천김, 옥천전, 우주황, 울진장, 음성박, 의령옥, 인청이, 장연노, 제안황, 진위이, 진주강, 진주소, 진주장, 창녕장, 창원현, 천안김, 청송이, 충주안, 충주조, 평산한, 평양조, 하음이, 함양오, 함평모, 행주은, 화순김, 화순최, 회덕황, 횡성조, 흥양이</p>

1명	감천문, 강동김, 강동이, 강릉박, 강릉이, 강릉전, 강화위, 강희이, 개령문, 개령임, 개성고, 개성이, 개성정, 개성최, 처창탁, 경산전, 경주전, 계림김, 고부최, 고성박, 고양김, 고양이, 고창오, 곡산강, 곡산노, 곡산한, 곡산강, 공주배, 과천전, 광주반, 광평이, 교동인, 교하노, 교하한, 구례손, 구례장, 군위서, 군위오, 금성유, 금천강, 금천김, 나주송, 나주양, 낙안오, 남양서, 남양양, 남원문, 남원원, 남원진, 남평서, 남평조, 남주최, 능성김, 능성장, 능주최, 당성홍, 당진박, 동래김, 동래임, 동성이, 동주최, 문경최, 밀양양, 밀양오, 보령정, 보령최, 복성노, 봉산곽, 봉산이, 봉화정, 부령손, 부안한, 부유심, 분성배, 사천박, 삼척심, 상주염, 상주최, 서산송, 서산정, 서택임, 서하노, 선산유, 설성유, 성주전, 성주초, 수성나, 수안김, 수안전, 수안조, 수원이, 순장박, 순창설, 순창염, 순창이, 순창임, 순천장, 순천현, 시흥김, 신창방, 안강노, 안동고, 안동권2, 안동천, 안산이, 안산임, 안산홍, 안악양, 양산김, 양주송, 양주신, 양주최, 여주박, 연기김, 연안길, 연안송, 연안허, 연일김, 연일오, 연주김, 연풍김, 염주홍, 영동김, 영산김, 영암김, 영암최, 영양천, 영천정, 영천최, 예천임, 옥야임, 옥천육, 웅진정, 용궁김, 용성차, 용안이, 우봉김, 울산이, 웅천김, 원주석, 원주최, 원주허, 은진김, 은진윤, 의령여, 의흥예, 이천채, 익흥이, 인동유, 인동장, 인천문, 임강이, 장수이, 장흥오, 장흥정, 적성김, 전주박, 전주유, 전주장, 전주전, 정산김, 정선김, 정주이, 제남왕, 제주부, 중화양, 지례장, 직산조, 직산최, 진주동방, 진주이, 진주최, 진천김, 진천장, 창원구, 창원박, 천녕유, 철성남, 청산박, 청송김, 청주경, 청주손, 청주양, 청주양, 초계최, 춘천박, 춘천정, 충주이, 충주한, 탐진안, 통진전, 파주정, 파평모, 평강전, 평산김, 평산유, 평산조, 평택박, 평택한, 풍기진, 풍산심, 풍양김, 풍천방, 하양김, 하양최, 하음김, 하음봉, 함안윤, 함열조, 함창김, 함평노, 합천이, 항주황, 해남정, 해주김, 해주윤, 해평길, 흥천백, 화산이, 화산김, 화순오, 황주변, 황주최, 황주황, 횡성고
----	---

〈표 4〉에 의하면 유학출신 중에서 문과에 가장 많이 합격한 성관은 전주이씨(301명)이며, 청주한씨(131명), 파평윤씨(119명), 안동권씨(117명), 남양홍씨(117명), 밀양박씨(111명)순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성관에서 유학출신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현상을 좀 더 고찰해 보기 위해 〈표 5〉 주요 성관의 세기별 배출 인원을 살펴보자.

표5. 주요 성관의 시기별 배출 인원

성관	합계	15전	15후	16전	16후	17전	17후	18전	18후	19전	19후
전주이	301 /5.67	-	-	2 /0.04	11 /0.21	13 /0.25	11 /0.21	28 /0.53	68 /1.28	63 /1.19	105 /1.98
청주한	131 /2.47	-	-	3 /0.06	5 /0.09	3 /0.06	6 /0.11	19 /0.36	29 /0.55	28 /0.53	38 /0.72
파평윤	119 /2.24	2 /0.04	-	3 /0.06	8 /0.15	5 /0.09	3 /0.06	11 /0.21	19 /0.36	17 /0.32	51 /0.96
남양홍1	117 /2.21	-	1 /0.02	4 /0.08	2 /0.04	8 /0.15	4 /0.08	17 /0.32	20 /0.38	26 /0.49	35 /0.66
안동권1	117 /2.21	1 /0.02	-	-	12 /0.23	2 /0.04	11 /0.21	16 /0.30	19 /0.36	29 /0.55	27 /0.51
밀양박	111 /2.09	-	-	2 /0.04	5 /0.09	5 /0.09	6 /0.11	15 /0.28	23 /0.43	23 /0.43	32 /0.60
경주김	89 /1.68	-	2 /0.04	4 /0.08	4 /0.08	5 /0.09	4 /0.08	6 /0.11	19 /0.36	21 /0.40	24 /0.45
반남박	88 /1.66	-	-	1 /0.02	2 /0.04	2 /0.04	4 /0.08	10 /0.19	13 /0.25	26 /0.49	30 /0.57
광산김	87 /1.64	-	1 /0.02	2 /0.04	4 /0.08	3 /0.06	8 /0.15	11 /0.21	12 /0.23	21 /0.40	25 /0.47
연안이	85 /1.60	-	-	1 /0.02	1 /0.02	4 /0.08	2 /0.04	12 /0.23	22 /0.41	12 /0.23	31 /0.58
연안김	84 /1.58	-	-	1 /0.02	-	1 /0.02	4 /0.08	4 /0.08	16 /0.30	29 /0.55	29 /0.55
진주강	84 /1.58	3 /0.06	1 /0.02	2 /0.04	3 /0.06	4 /0.08	3 /0.06	5 /0.09	21 /0.40	18 /0.34	24 /0.45
김해김1	74 /1.39	1 /0.02	2 /0.04	1 /0.02	2 /0.04	-	5 /0.09	8 /0.15	21 /0.40	7 /0.13	27 /0.51
경주이	73 /1.38	-	1 /0.02	-	3 /0.06	3 /0.06	5 /0.09	9 /0.17	9 /0.17	16 /0.30	27 /0.51
광주이	72 /1.36	1 /0.02	1 /0.02	4 /0.08	5 /0.09	2 /0.04	1 /0.02	9 /0.17	14 /0.26	14 /0.26	21 /0.40
여흥민	67 /1.26	2 /0.04	-	3 /0.06	5 /0.09	1 /0.02	3 /0.06	3 /0.06	9 /0.17	2 /0.04	39 /0.74
동래정	65 /1.23	-	-	1 /0.02	6 /0.11	1 /0.02	2 /0.04	11 /0.21	12 /0.23	14 /0.26	18 /0.34
풍양조	63 /1.19	-	-	-	-	4 /0.08	2 /0.04	4 /0.08	15 /0.28	12 /0.23	26 /0.49
한산이	60 /1.13	1 /0.02	1 /0.02	1 /0.02	1 /0.02	4 /0.08	1 /0.02	5 /0.09	11 /0.21	18 /0.34	17 /0.32
신안동 김	58 /1.09	-	-	-	-	-	-	2 /0.04	12 /0.23	17 /0.32	27 /0.51
청송심	58 /1.09	-	-	1 /0.02	3 /0.06	1 /0.02	3 /0.06	5 /0.09	14 /0.26	12 /0.23	19 /0.36
평산신	56 /1.06	-	-	3 /0.06	1 /0.02	2 /0.04	2 /0.04	6 /0.11	17 /0.32	6 /0.11	19 /0.36
안동김	55 /1.04	1 /0.02	-	4 /0.08	1 /0.02	6 /0.11	3 /0.06	14 /0.26	15 /0.28	3 /0.06	8 /0.15
순흥안	53 /1.00	1 /0.02	-	4 /0.08	1 /0.02	-	2 /0.04	6 /0.11	10 /0.19	12 /0.23	17 /0.32
대구서	51 /0.96	-	-	1 /0.02	1 /0.02	-	-	3 /0.06	10 /0.19	16 /0.30	20 /0.38
풍천임	50 /0.94	-	-	3 /0.06	5 /0.09	-	2 /0.04	5 /0.09	13 /0.25	10 /0.19	12 /0.23



〈표 5〉는 50명 이상을 배출한 성관의 세기별 배출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 5〉의하면 세기별로 성관세에서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전주이씨의 경우 15세기에는 합격자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16세기 전반에 0.04%를 차지하기 시작하여 16세기 후반에 前시기에 비해 0.1% 증가하면서 1위를 차지한 이래,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기별 점유율에는 약간의 증감이 있다. 17세기 전반에 0.25%까지 증가하다가 17세기 후반에 0.21%로 감소하고, 18세기 전반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전반 0.53%, 18세기 후반 1.28%이었다가 19세기 전반 0.09%감소하여 1.19%, 19세기 후반 1.98%를 나타낸다. 곧 전주이씨는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타성에 비해 우세를 유지하며 19세기 후반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전주이씨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고종 말년 종친에 대한 특혜가 많이 주어진데서 기인하였다. 고종 당시 흥선대원군은 종친부를 중심으로 종친들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그들을 왕실과 왕권의 기반으로 만들려했다. 그는 종친부를 재건하고 『선원보략』 수보를 추진하면서 종친선파인들의 정치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종부시의 위격문제를 계기로 종친부와 중앙권력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했기 때문이다.<sup>7)</sup>

전주이씨 외에 〈표 5〉에서 주목되는 성관은 여흥민씨이다. 여흥민씨는 15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0.02-0.17%선을 차지하다가 19세기 후반기에는 0.74%로 증가한다. 이는 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고종이 자주독립과 왕권강화를 위한 반청정책을 추진할 세력으로 여흥민씨 세력을 적극 등용하였기 때문이다.<sup>8)</sup>

각 성관별 성관세의 부침은 세기별 순위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표 5〉를 바탕으로 10대 성관을 뽑아 세기별 순위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6. 10대 성관의 세기별 순위

시기 성관	15전	15후	16전	16후	17전	17후	18전	18후	19전	19후
전주이	-	-	-	2	1	1	1	1	1	1
청주한	-	-	2	5	-	4	2	2	4	4
파평윤	2	-	2	3	4	7	9	7	8	2
남양홍	-	2	1	8	2	5	3	6	4	5
안동권	3	-	-	1	7	1	4	7	2	10
밀양박	-	-	3	5	4	3	5	3	5	6
경주김	-	1	1	6	4	5	10	7	6	13
반남박	-	-	4	8	7	5	9	12	4	8
광산김	-	2	2	6	6	2	8	12	6	12
연안이	-	-	4	9	5	7	7	4	12	7

7) 김병우, 「대원군 집권 전후 종친과 종정경의 정치적 역할」, 『대구사학』 105, 2011, 88쪽

8) 박진철, 「고종연간 민씨세력의 정치적 동향과 과거등용」, 『인문학연구』 32집, 2004

〈표 6〉을 보면 전 시기에 걸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성관은 단 한 성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주이씨인 경우 16세기 전까지 합격자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16세기 후반에 2위로 들어선 이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후반에 가서야 전주이씨 중에서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은 이때부터 선왕의 자손으로 5대손이 넘어가 종친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勢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종친이라도 유학으로 전략하여 과거 응시를 통해 문과에 급제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자호란 이후 종친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면서 외방에 흩어져 사는 자가 열에 아홉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서울에 올라오기를 거부하고 지방에 거주하였다. 아울러 종친들은 進畵이 어려울 정도였고, 종친부는 가난한 종친을 구휼하기에 바빴다. 춘궁기가 되면 종친부가 종친 구제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할 정도로 종친들은 피폐했던 것이다.<sup>10)</sup>

청주한씨와 남양홍씨, 밀양박씨, 반남박씨는 비교적 고른 족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한씨는 16세기 전반기부터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2, 4, 5위를 유지하고 있다. 남양홍씨는 15세기후반 합격자를 배출한 이래 전시기에 걸쳐 1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를 차지하며 평균 4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밀양박씨 역시 평균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김씨와 광산김씨는 초기에는 순위가 높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성관이다. 경주김씨는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 1위였다가 16세기 후반에 6위로 떨어지고, 17세기에 4-5위였으나 18세기 10위로 떨어지고 19세기 후반에는 13위까지 떨어지고 있다. 광산김씨 역시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전반에는 2위였다가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6위로 떨어지고, 17세기 후반 다시 2위를 차지하지만 19세기 후반에는 12위로 밀려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평윤씨와 안동권씨는 상승과 하강의 기복이 있는 성관이다. 파평윤씨는 15세기 전반기 16세기 전반기에 2위,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에 3-4위,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기에 7,8,9위를 유지하다가 19세기 후반기에 다시 2위로 올라선다. 안동권씨는 15세기 전반 3위였다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전반에는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다가 16세기 후반 1위로 올라서고 17세기 전반 7위로 떨어지고, 17세기 후반 다시 1위가 되고 18세기 전반 4

9) 『經國大典』에서 宗親은 大君子孫의 4대손, 王子君子孫의 3대손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선왕자손으로 5대손이 넘어간 자손은 親盡이라 칭하였으며 종친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친진은 종친으로써 일정한 품계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다. (김수경, 「17세기후반 宗親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이데사원』, 1997, 27쪽)

10) 김병우, 앞의 글, 74쪽

위, 18세기 후반 7위, 19세기 전반 2위, 19세기 후반 10위가 되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다.

#### 4. 유학출신자의 거주지 분석

유학출신 문과합격자 5,439명중 42.62%에 해당하는 2,318명은 거주지를 알 수 없다. 이는 『문과방목』 자체의 거주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15세기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전체 5,439명 중에 1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미상자의 비율이 49.95%로 합격자의 절반에 가깝기는 하지만 거주지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학출신자의 숭시기에 걸친 거주지 파악은 힘들지만, 前시기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지는 18세기 후반기부터 그 거주를 살펴봄으로써 유학출신자의 거주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 7> 유학출신자의 지역별 배출인원을 보도록 하자.

표7. 유학출신자의 지역별 배출인원

시기 거주지	통계	15전	15후	16전	16후	17전	17후	18전	18후	19전	19후
미상	2,318 (42.62)	65	40	173	250	209	314	649	520 (49.95)	14 (1.33)	84 (5.16)
평안도	745 (13.70)	-	-	-	-	-	-	-	134 (12.87)	238 (22.60)	373 (22.91)
서울	729 (13.40)	1	-	-	2	1	-	-	108 (10.37)	250 (23.74)	367 (22.54)
경상도	551 (10.13)	-	-	-	3	4	1	2	86 (8.26)	203 (19.28)	252 (15.48)
충청도	338 (6.21)	-	-	-	-	-	-	-	48 (4.61)	124 (11.78)	166 (10.20)
경기도	312 (5.74)	-	-	-	-	-	-	-	69 (6.63)	89 (8.45)	154 (9.46)
전라도	280 (5.15)	-	-	1	-	-	2	-	52 (5.0)	87 (8.26)	138 (8.48)
강원도	82 (1.51)	-	-	-	-	-	-	-	18 (1.73)	29 (2.75)	35 (2.15)
황해도	77 (1.42)	-	-	-	-	-	-	-	5 (0.48)	16 (1.52)	56 (3.44)
함경도	7 (0.13)	-	-	-	-	-	-	-	1	3 (0.28)	3 (0.18)
합계	5,439 (100)	66	40	174	255	214	317	651	1,041 (100)	1,053 (100)	1,628 (100)

\*()는 %

〈표 7〉에 따르면 유학출신 합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미상을 제외하면 평안도-서울-경상도-충청도-경기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 순이다. 시기별로는 18세기 후반기에는 평안도-서울-경상도-경기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 순이며, 19세기 전반에는 서울-평안도-경상도-충청도-경기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 19세기 후반기에는 평안도-서울-경상도-충청도-경기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함경도 순이다. 19세기 전반에 서울이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18세기 후반과 19세기 후반에는 평안도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도는 3시기 모두 3위이며, 충청도는 18세기 후반기에는 6위였지만 19세기에는 4위를 점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위를 차지하는 서울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위에 머물고 있다. 전라도는 18세기 후반기에 5위였지만 19세기에는 6위로 떨어지며, 강원도-황해도-함경도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는 7,8,9위를 차지하나 19세기 후반기에는 황해도가 함경도 보다 21명이나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함경도는 줄곧 가장 적은 수의 합격자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주지를 살펴보면 합격인원 7명 모두 길주 출신임이 확인된다. 〈표 7〉에서 가장 주목되는 거주지는 1위를 점하고 있는 평안도이다. 평안도는 18세기 후반에 합격자를 배출하는 비중이 12.87%에 머물렀지만 19세기가 되면서 20%대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평안도에 합격자가 집중 분포하는 것이 문과합격자 전체에 해당되는지 유학에만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8〉 문과급제자의 전역별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자.

표8. 문과급제자의 전역별 거주지 현황

전 력 순 위	유학(명)	생원(명)	진사(명)	원유계자(명)
1	미상(2,318)	미상(2,390)	미상(1,929)	미상(3,906)
2	평안도(745)	서울(184)	서울(361)	서울(380)
3	서울(729)	경상도(65)	경기도(60)	경기도(45)
4	경상도(551)	충청도(40)	충청도(50)	평안도(36)
6	충청도(338)	경기도(38)	경상도(26)	충청도(34)
7	경기도(312)	전라도(22)	전라도(22)	경상도(25)
8	전라도(280)	강원도(12)	평안도(20)	전라도(11)
9	강원도(82)	평안도(12)	강원도(7)	강원도(11)
10	황해도(77)	함경도(7)	황해도(4)	황해도(4)
11	함경도(7)	황해도(4)		

〈표 8〉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원, 진사, 원유계자인 경우 공통적으로 서울지역에 합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유학은 평안도에 합격자가 몰려 있다는 점이다. 평안도는 생원인 경우 9위, 진사인 경우 8위로 생원·진사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은 합격자를 내고 있지는 않다. 생원은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경상도 거주자들이 근기 지역인 충청도, 경기도 보다 많은 반면 진사는 경상, 전라도 지역보다는 경기도, 충청도 거주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유계자에 있어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4위이지만, 유학출신자 수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곧 유학인 경우만 평안도가 서울보다도 더 많은 합격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평안도 중에서도 어느 군현에서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9〉를 살펴보자.

표9. 평안도내 군현별 유학출신자의 문과합격자 배출 인원수

	군현 및 인원수
1000이상	정주 165
50-59명	평양 56
40-49명	함흥 43
30-39명	안주 39, 태천 33, 영변 32
20-29명	가산 25, 숙천 24, 개천 20,
10-19명	박천 19, 정원 16, 상원 15, 의주 15, 철산 14, 성천 13, 영유 13, 선천 11, 강동 11, 명천 11, 용강 11, 곡산 10
9-5명	강서 9, 경성 9, 구성 9, 순안 9, 용천 9, 정평 7, 운산 7, 삭주 7, 은산 7, 안변 6, 중화 6, 영흥 6, 덕원 5, 벽동 5, 북청 5
4명	안북 4, 종성 4, 흥원 4, 회령 4
3명	경원 3, 삼등 3, 위원 3
2명	창성 2, 희천 2
1명	강계 1, 고원 1, 단천 1, 덕천 1, 맹산 1, 부령 1, 삼수 1, 삼화 1, 안비 1, 양덕 1, 영원 1, 이산 1, 자산 1, 함중 1

〈표 9〉에 의하면 평안도 내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군현은 총 59개로, 이 중 가장 많이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정주이다. 정주는 평안도에서 배출된 인원의 22.15%(165명)를 차지하고 있다. 정주는 북쪽과 동쪽은 산악지대이지만 서쪽과 남쪽 지역은 평야지대로서, 산악지대에서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여러 개의 물줄기가 관통하고 있어서 벼농사 및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한 관

개에 유리하고, 해안에 접하고 있어 해산물도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서울에서 의주로 통하는 대로가 정주를 관통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가 되었으며,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의 행차를 비롯한 대중국 무역의 통로가 되어 상업 발달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sup>11)</sup>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정주에서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주 다음으로는 평양(56명), 함흥(43명), 안주(39명), 태천(33명), 영변(32명)으로 평안도 내에서 배출된 합격자의 27.25%(203명)를 점유하였다. 정주의 인원과 합하면 이들 6개 지역에서 평안도 배출인원의 49.4%를 차지한다. 반면에 10명 미만을 배출한 38개 군현에서 배출된 인원은 148명으로 19.87%를 차지하여 군현에 따라 배출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평안도가 높은 문과 급제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상업, 수공업, 광업의 발달 등으로 평안도의 재부가 다른 도에 비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재정의 평안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평안도는 원래 상업에 불리하였으나 17세기 후반 이후 전란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청의 요구로 청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시작된 것이 상업 진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평안도는 軍備와 勅需의 비축으로 말미암아 재화의 움직임이 활발하였으므로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평안도에 축적된 전곡은 일찍부터 정부 재정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현종 연간에는 삼남 등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관서의 비축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으로 실어냈으며, 숙종대에 들어와서는 상례적인 국가 재정을 發賣의 방식으로 황해도와 함께 평안도에서 끌어다 쓰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영조 초년에는 호조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 관서의 비축 전곡을 올려다 쓰기 시작하였고 영조 11년에는 관서의 收稅米 1/3을 호조에 납부하는 법이 정해지기에 이르렀다. 평안도 재정의 중앙 통합은 정조대에도 더욱 심화되었으며,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의 많은 비용을 평안도에서 조달하였던 것이다.<sup>12)</sup>

또한 개혁을 전후하여 활발히 전개된 중국 및 서양문물과의 교섭과 교육기관의 확대 등도 평안도 출신 문과 합격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3)</sup>

## 5. 유학출신자의 합격 나이 분석

유학은 앞서 정의하였듯이 벼슬을 갖지 못한 양반 사족이었으므로, 문과합격 여부에 따라 버

11) 김선주, 「조선 후기 평안도 정주의 향안 운영과 양반문화」, 『역사학보』 185, 2005, 68쪽

12) 오수창, 「17,18세기 평안도 유생·무사층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규장각』 18, 1995

13) 최진옥, 「조선시대 평안도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227-228쪽

슬 없는 사족으로 남느냐 관직에 진출하여 立身揚名하고 집안의 家格을 높이느냐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평생을 전념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고, 양반 사족으로 태어난 이상 비껴갈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거합격이 몇 세에 이루어지는 개인과 집안 모두에게 중요했으리라 생각된다. 과거 합격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높은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이득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유학출신자들은 몇 세에 문과에 합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0>을 살펴보자.

표10. 유학출신자의 합격당시 나이 현황

연령	합계 (명)	15전	15후	16전	16후	17전	17후	18전	18후	19전	19후	비율 (%)
15세이하	33	-	-	-	-	-	-	-	-	-	33	0.65
16-20세	291	3	2	8	9	14	11	10	20	37	177	5.73
21-25세	736	5	1	19	49	41	58	79	117	123	244	14.49
26-30세	1,070	1	4	17	54	40	79	153	219	205	298	21.06
31-35세	985	-	-	9	35	45	63	156	214	220	243	19.39
36-40세	769	-	-	5	22	29	47	118	163	186	199	15.13
41-45세	470	-	-	1	9	14	21	66	112	111	136	9.25
46-50세	301	-	1	1	-	8	14	35	77	73	92	5.92
51-55세	187	-	-	-	1	3	4	15	46	48	70	3.68
56-60세	99	-	-	-	-	3	7	11	24	20	34	1.95
61-65세	58	-	-	-	-	2	4	3	18	17	14	1.14
66-70세	38	1	-	-	-	-	2	1	15	6	13	0.75
71-75세	28	1	-	2	-	-	-	-	5	4	16	0.55
76세이상	16	-	-	-	-	-	-	1	7	2	6	0.31
총계(명)	5,081	11	8	62	179	199	310	648	1,037	1,052	1,575	100.0
평균(세)	31	31	27	28	29	32	32	34	36	35	33	

<표 10>은 유학출신자의 합격당시 나이를 정리한 것으로 유학출신자 총 5,305명 중에서 나이를 알 수 없는 224명은 제외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평균 문과 합격연령은 31세이다. 17세기부터 평균연령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 36세로 가장 높아졌다가 19세기 후반 33세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평균 합격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이시기가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에 합격하는 경우가 21.06%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 전반(19.39%), 30대 후반(15.13%), 20대 전반(14.49%)순이다. 15세 이전에 합격하는 경우는 0.65%로 76세 이상인 0.31%보다는 0.3% 높다. 또한 16세에서 30세사이의 합격자는 전시기에 걸쳐 모두 배출되고 있지만 15세 이전은 19세기에만, 76세 이상은 18세기부터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10대 후반은 5.73%, 40대 전반 9.25%, 40대 후반 5.92%, 50대 전반 3.68%, 50대 후반 1.95%, 60대 전반 1.14%, 60대 후반 0.75%, 70대 전반 0.55%이다. 즉 41.9%는 30세 이전에 문과에 급제하고 있고 30대에 합격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76.4%가 40세 이전에는 문과에 급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3.5%는 30년 이상 문과에 합격하지 못하고 과거를 준비한 썸이다. 50세 이상이 8.3%나 되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수가 평생을 오로지 과거합격만을 위해 시간을 보낸 것이다.

다음으로 합격연령에 따른 응시 시험을 조사해 보면 <표 11>과 같다.

표11. 합격연령별 응시 시험

연령	합계(%)	식년시(%)	증광시 (%)	각종 별시 (%)
15세 이하	33(100)	8(24.24)	3(9.1)	22(66.67)
16-20세	291(100)	75(25.77)	42(14.43)	174(59.79)
21-25세	736(100)	284(38.59)	90(12.23)	362(49.18)
26-30세	1,070(100)	523(48.88)	123(11.50)	424(39.63)
31-35세	985(100)	518(52.59)	122(12.39)	345(35.03)
36-40세	769(100)	422(54.88)	104(13.52)	243(31.60)
41-45세	470(100)	244(51.91)	63(13.40)	163(34.68)
46-50세	301(100)	149(49.52)	43(14.29)	109(36.21)
51-55세	187(100)	94(50.27)	31(16.58)	62(33.16)
56-60세	99(100)	55(55.56)	12(12.12)	32(32.32)
61-65세	58(100)	40(68.97)	8(13.79)	10(17.24)
66-70세	38(100)	31(81.58)	2(5.26)	5(13.16)
71-75세	28(100)	20(71.43)	-	8(28.57)
76세 이상	16(100)	7(43.75)	-	9(56.25)
총계(명)	5,081	2,470	643	1,968



〈표 11〉에 따르면 25세 이하와 76세 이상은 각종 별시 합격률이 높으며, 26세 이상에서 75세까지는 식년시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15세 이하는 67%에 임박할 정도로 별시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15세 이하가 합격한 각종 별시의 종류를 보면 강화별시 1명, 알성시 5명, 평안도도과 3명, 庭試 9명, 별시 3명, 기로정시 1명이다. 15세 이하는 각종 별시 중에서도 정시에 가장 많이 합격하고 있다. 이는 정시가 당일에 결판이 나고 상피제도 없었을 뿐더러 현종 10년(1844)부터는 서울 뿐 아니라 각도 감영에서도 초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다른 별시보다 폭넓은 과거시험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sup>14)</sup>

76세 이상인 경우 개성별시 1명, 정시 3명, 기로응제시가 5명으로, 고령인 만큼 70세이상만을 대상으로하는 기로응제시에 합격한 수가 많다.

## 6. 맺음말

이상 유학출신자의 문과급제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유학은 문과 전체합격자 중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전력군으로 17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에는 유학 출신 합격자가 전체 문과급제자의 73.96%를 차지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유학출신자는 다른 전력층에 비해 식년시 합격비율이 높는데 이는 유학이 벼슬하지 않는 양반 사족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이들은 벼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재경사족이기 보다는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재지사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지사족에게는 비정기 시험보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 대비하기 용이한 식년시에 응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유학출신자의 성관은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이 총 444개로 전체 성관수의 절반이 넘는 79.8%를 차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40명 이상을 배출한 성관은 33개로 전체 5.9%에 불과하지만 합격자 인원은 2,566명(48.4%)으로 유학출신 문과합격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학출신자의 문과 합격자 배출 성관의 폭은 넓은 반면에 주요 성관에 편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는 전주이씨가 가장 많고, 청주한씨-파평윤씨-안동권씨-남양홍씨-밀양박씨 순이다.

유학출신자의 거주지는 18세기 후반부터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는데, 다

14)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2000년, 118-119쪽

른 전력군에 비해서 평안도에서 합격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당시 평안도의 재부가 다른 도에 비해 증대되고 그에 따라 국가재정의 평안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개항을 전후하여 활발히 전개된 중국 및 서양문물과의 교접과 교육기관의 확대 등도 평안도 출신 문과 급제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유학출신자의 문과급제 평균연령은 31세이며, 20대 후반에 합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와 76세 이상은 각종 별시 합격률이 높으며, 26세 이상에서 75세까지는 식년시 합격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